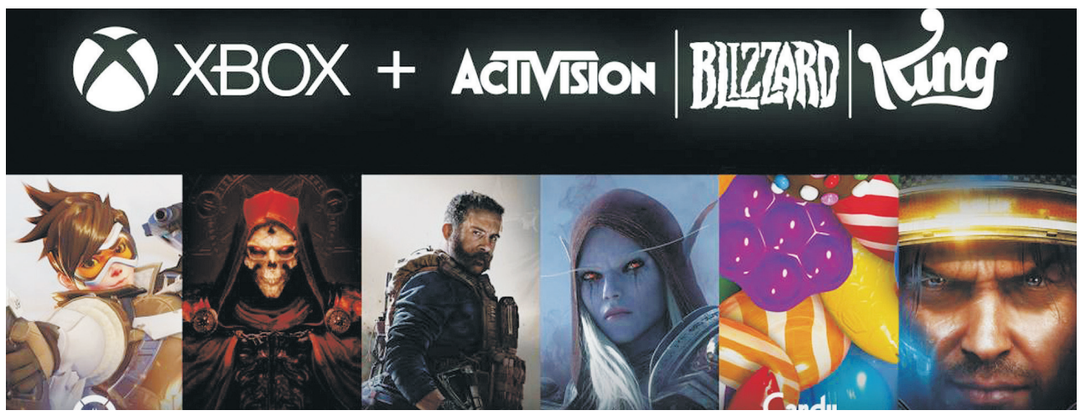
블리자드 먹은 MS, 단숨에 '게임 빅3'

텐센트·소니 이어 업계 3위 등극
82조 인수…업계 지각변동 예고
메타버스 주도권 등 쟁탈전 가열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적인 게임 기업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2조원)에 인수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공

MS(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적인 게임 기업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2조원)에 인수한다. 글로벌 IT(정보통신)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인수합병)로, 게임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MS는 18일(미국 현지시간)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달러에 전액 현금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인수가는 지난 14일 주가에서 45% 프리미엄을 붙인 주당 95달러로 책정했다. 블리자드 주가는 지난 14일 65.39달러에 마감했다.

MS는 이날 인수 계획과 함께 게임 사업을 확장하고 메타버스 주도권 쟁탈전에 본격 참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MS 관계자는 "게임은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엔터테인먼트로, 블리자드는 게임 개발과 양방향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선두주자"라며 "이번 인수를 통해 모바일, PC, 콘솔, 클라우드 전반에 걸친 게임 사업을 가속화하고 메타버스의 토대를 쌓겠다"고 설명했다.

MS는 이번 인수가 완료되면 매출 기준으로 텐센트, 소니에 이어 세계 3위 게임사로 등극한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를 포함해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오버워치', '캔디 크러시 사가' 등 세계적인 게임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하고 있다. 블리자드의 게임들이 MS의 엑스박스에 합류할 경우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뛰어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MS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블리자드의 게임을 출시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월정액 구독 방식의 게임 서비스로 가입자가 2500만명에 이른다. MS는 이번 인수로 글로벌 e스포츠 자산과 1만명에 달하는 게임 개발인력도 확보한다.

필 스펜서 MS 게이밍 CEO(최고경영자)는 "전 세계 게임 플레이어들은 블리자드 게임을 좋아한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게임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분야 경쟁력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애플, 메타(구 페이스북) 등은 이미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했다. MS는 게임과 연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 메타의 VR(가상현실) 기기 오큘러스 서비스와 경쟁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사티아 나델라 MS 회장 겸 CEO는 "게임은 오늘날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리자드 입장에서도 이번 인수가 호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발생한 성추행 논란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블리자드는 최근 사내 성추행 등으로 핵심 개발자 30여명이 퇴사하고 40여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바비 코틱 액티비전 블리자드 CEO는 앞으로도 직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인수 완료 시점을 MS의 202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내년 6월 말 이후로 보고 있다. 다만 인수가 이뤄지려면 규제 당국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근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심사에 시간이 걸리거나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넷플릭스 "올 25개 K-콘텐츠 제작"

회원수 작년보다 120만명 늘어
작년 5000억보다 많은 투자 약속

2016년 국내 시장 진출 후 K-콘텐츠에 1조원을 쏟아부은 넷플릭스가 올해 25개 이상의 한국 오리지널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넷플릭스가 19일 오후 한국 콘텐츠 라인업에 대해 개최한 비대면 간담회에서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VP(부사장)는 올해 공개할 콘텐츠에 대해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작년 말 기준 국내에서 500만 유료 구독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년(380만)에 비해 120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25개 이상의 한국 오리지널 작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10편이나 늘어난 것으로, 창의적 소재와 탄탄한 완성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앞서 선보인 작품들이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터라 올해 작품들에 거는 기대도 크다.

강 VP는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 전 세계 회원들의 시청 시간은 2019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성과"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해 5000억여 원보다 큰 규모의 투자를 한다. 강 VP는 "올해 투자규모를 지금 시점에서 알기는 힘들다"면서도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1조원이고, 작년 한 해만 해도 5000억원"이라며 "작년에 내놓은 오리지널 작품이 15개인데, 올해는 25개를 선보인다.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후발 주자이자 경쟁 상대로 꼽히는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 HBO맥스 등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VP는 "아직 OTT를 안 보는 이들이 훨씬 많은데 많은 서비스가 선보이면 시장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콘텐츠가 발굴되고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선희기자 view@

어류종자 양식·항노화 소재… 제주에 혁신을 입히다

대학·기업 오픈랩, 지역 성장엔진 켜다

2 제주대학교

어류종자생산랩 어민 소득 돕고
동백유래 추출물 식품건강식품
감귤진피 음료·토착미생물업도


김봉수 과기일자리진흥원장(왼쪽부터)과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 차관이 제주대 어류종자생산 오픈랩에 참여하는 어업회사법인 씨알의 붉바리 양식기술 사업화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과기일자리진흥원 제공

"지역 강점을 살린 스마트 관광과 청정 바이오 분야에서 '제주형 기술사업화' 성공모델을 만들겠다."

제주대학교와 지역 기업들이 대학의 연구결과물을 산업 현장으로 연결해 성장엔진을 만들기 위해 뭉쳤다. 이들은 제주대 산학협력단을 구심점으로 6개 협업 연구팀을 구성해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9일 현장을 찾아 제주대 오픈랩 현판식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확대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대학과 기업들이 기술사업화 이인삼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 육성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지역 대학을 선정한 후 대학 연구실과 지역 기업이 협력해 사업화를 하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대학·기업·혁신기관이 손잡다=제주대는 첨단 과학기술단지와 지역 혁신기관, 정부출연연이 인근에 위치하고 캠퍼스 내에 108개 기업이 입주해 있어 산·학·연 협력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 이를 활용해 지난해 스마트 관광, 청정 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6개 오픈랩을 구성했다. 이미 첫해 사업을 통해 8건의 기술이전과 3억3500만원의 기술료 수입, 12명의 기업 신규채용 등 성과를 만들어냈다. 기업 수요 발굴을 거쳐 오픈랩을 구성함으로써 사업화 성과가 빠르게 나오도록 하고, 생산기술연구원, 지역 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등과 협력 지원체계를 갖춰 기업들의 사업화에 걸림돌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용홍택 차관은 이날 송석언 제주대 총장 등과 오픈랩 현판식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산업과 대학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지역 기술사업화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 기업과 상생의 이익과 가치를 만드는 게 대학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류 양식기술부터 면역소재도 상용화 추진=제주대 오픈랩은 ▲이동선 바이오소재전공 교수가 이끄는 바이오헬스소재랩 ▲김세재 생물학과 교수가 주도하는 기능성식음료랩 ▲정만영 생물교육전공 교수가 주도하는 토착미생물사업화랩 등으로 구성된다. 또 ▲이영돈 해양과학연구소 교수가 어류종자생산랩 ▲조문제 의학과 교수가 항섬유화랩 ▲김광일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가 선박해양 빅데이터랩을 이끈다.

어류종자생산랩은 어업회사법인 씨알과 붉바리 양식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 수정란 생산, 우량종자 생산, 치어용 먹이사료 조성 등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붉바리 조기 친어화 기술을 개발하고 1억원의 기술이전을 체결했다.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시장을 개척해 올해 수출 5억원, 국내 2억원 등 7억원의 매출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바이오헬스소재랩은 지역기업인 동백사랑, 크로넥스, 나은과 협력한다. 제주 바이오자원을 활용해 항노화·면역 소재를 발굴해 실용화하는 게 목표다. 크로넥스는 실험동물 맞춤형 기능성 사료, 동백사랑은 동백유래 추출물의 건강기능성 식품 및 생활용품, 나은은 제주 컬러푸드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용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3건의 기술이전과 5500만원의 기술료, 박사급 인력 채용이란 성과를 거뒀다

기능성식음료랩은 지역기업 헬스셋과 손잡고 생물자원을 활용해 체중조절, 배변활동 등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음료 소재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11월 5000만원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감귤진피 혼합 농축액과 고시형 원료를 결합한 기능성 식품 개발을 끝냈다. 토착미생물사업화랩은 제주 토착 유용균을 분리해 가축사료, 간식류, 화장품 등을 상용화하는 게 목표다. 항섬유화 유픈랩은 폐섬유화증 치료를 위한 후보물질을 개발해 사업화할 계획이다. 에이켐바이오와 함께 후보물질의 독성과 약동학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해 1억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선박해양 빅데이터랩은 해양교통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해상교통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및 수치모델링 기반 해양데이터 예측, AI 기반 항해서비스 프로그램 사업화를 추진한다.

안경애기자 naturean@

KT DS "파트너사 자생력 키워 동반성장"

KT그룹 IT서비스 전문 기업 KT DS(대표 우정민)가 상생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 성장폭을 확대한다.

KT DS는 18일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간담회를 열고, 리그시스템, 쌍용정보통신, 알앤비소프트 등 13개 주요 협력사와 올해 사업 방향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KT DS는 2008년 창립 후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사 지원 폭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1월, 코로나19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파트너사 임직원 대상 무상 IT 교육 커리큘럼을 확대하고, 비대면 수강이 가능하도록 원격 강의를 추가 개설했다. 최신 기술 트렌드로 교육 분야도 넓혔다. 또 KT DS의 인재양성 과정을 수료한 구직자와 파트너사 간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전체 수료자의 45%가 파트너사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파트너 자생력 강화와 더불어 무게를 둔 것이 금융 지원이다. 중소·중견 규모 파트너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100%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자금 유동성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저금리 대출인 상생협력펀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직후에는 파트너사 자금난에 대비해 펀드 규모를 20억원 추가한 50억원으로 늘리고 2021년 기준 총 17개사에 약 35억원을 대여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성과 공유 및 코로나 극복 격려의 의미로 총 3억5000여 만원의 인센티브와 포상금도 지급했다.

안랩, 성인용게임 파일 위장 악성코드 경고

안랩이 특정 파일공유 사이트에 성인용 게임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올려 디도스 공격용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에 대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명 성인용 게임 다운로드 게시물을 올리고, 악성코드를 포함한 압축파일을 업로드했다. 또 해당 게임 외에도 다양한 성인용 게임을 위장해 동일한 악성코드를 포함한 압축 파일을 여러 번에 걸쳐 올렸다.

이 압축파일의 실행파일(Game__Open.exe)을 열면 공격자의 명령에 따라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는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악성코드 설치와 동시에 성인용 게임도 정상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파일·콘텐츠 다운로드 시 공식 홈페이지 이용 ▲출처 불분명 파일 실행 금지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응용프로그램,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최신 버전 백신 사용 및 실시간 감시 적용 등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V3 제품군은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안랩 측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한 디도스 악성코드 유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파일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고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존비즈온 '위하고 티엣지' 무상 제공

중기·소상공인 위한 경영 솔루션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대응과 경영관리를 위해 '위하고 티엣지'를 무상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위하고 티 엣지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관리 솔루션이다. 회사는 이에 앞서 급여명세서 교부에 필요한 근무시간 관리와 다양한 직원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를 무료로 내놨다.

중소기업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응하려면 근로자의 근로시간 체크와 관리, 총 근로일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구분 등 복잡한 작업을 해야 한다. 각종 수당·식대 등 급여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금액까지 항목과 기재할 내용이 많다. 급여명세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자체적인 회계시스템이나 조직이 없어 세무회계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대응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 더존비즈온은 티 엣지를 무상 제공해 달라진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MSS의 모든기능을 추가설치없이 완벽하게
클라우드 통합메일보안솔루션
MSS MCS CLOUD SERVICE
AI기술 기반의 최신 기술로
안전한 기업메일 보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ysOne